

“장애가 내 희망까지 빼앗진 못합니다”

38세 때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 절단, 장애인의 삶 살아... 자녀 3명 키우며 “용기 잃지 말자” 다짐

4월 20일 장애인의날 특집 인물 이기선씨

“장애가 내 희망까지 가져가진 못했지요. 난 희망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뛰어 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지난 7일 고성군 지체장애인협회를 찾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장애인 이기선씨(68세, 지체장애 3급)를 만났다. 지체장애인협회 공동작업장에서 명태 포를 가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이씨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다고 했다.

이씨는 명주군 태생으로 어릴 적 부모를 따라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로 이주했다.

처음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양양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던 중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다고 한다.

어린 나이에 생활전선에 뛰어들 그는 돈 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닥치지 않고 열심히 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온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발생했다.

38세 되던 해 교통사고로 인해 좌측 대퇴부를 절단하게 된 것이다. 좌측 다리 절단 이후 의족을 달고 생활하게 된 이씨는 고통을 이기기 위해 매일 같이 술로 나날을 보냈다.

그러던 중 주위의 도움을 받아 중매로 결혼도 하고, 3명의 자녀까지 낳았다.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던 그에게 어린시절의 고통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에게 또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그렇게 가정을 꾸려 3자녀를 낳고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을 무렵 또 한번의 아픈시련이 찾아왔지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받아 준 사랑하는 아내와 사별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3명의 자녀를 둔 이씨는 “용기를 잃지 말자, 희망을 잃지 말자”며 굳은 마음으로 자식

을 위해 열심히 생활전선에서 닦아 치는대로 일을 했다고 한다.

이씨는 “처음엔 정말 힘이 들었지요. 장애가 있으니 일을 누가 시켜주나요? 아직까지 장애에 대한 편견이 많잖아요”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안타까워했다.

이씨는 아내와 사별 후 7년간 원양어선을 탔으며, 간성에서 장의사 생활도 5년 가량 했다.

이씨는 “아이들이 항상 아무사고 없이 착하게 자라줘서 고맙다”며 “내가 비장애인이었다면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 줄 수 있을텐데”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그는 올 가을 장가를 가는 막내 아들에게 300만원을 보냈으며,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이씨는 마음이 흔들릴 때면 주위에 있는 나보다 더 안 좋은 장애인들을 보며, 더욱 열심히 살아



야 겠다고 다짐하곤 한다.

“어렵게 살아온 만큼 희망과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박승근 기자

이순매 제10대 생활개선 고성군연합회장

“김치절임 사업 통해 소득 향상”

지난 8일 제10대 생활개선 고성군연합회장에 취임한 이순매 신임 회장은 “농촌 가정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해 농촌을 지켜나갈 여성후계세대 육성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모든 회원은 지역사회에 생활개선과제 및 각종 학습활동을 선도 실천하고 있다”며 “각종 사업을 통해 건전한 가정육성과 활력 있는 농촌사회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회장은 특히 농촌소득 향상을 위해 김치절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울러 농촌생활환경 가꾸기 및 보전활동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활개선 고성군연합회는 명태축제 등 각종행사에 참여해 고성군 특산물 알리기 홍보활동 및 사업을 펼쳐 판매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는 등 나눔실천봉사를 전개하고 있다.

또 고성군의 전통문화 계승 및 효의 실천, 농촌과 도시회원간의 교류 등 지역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 회장은 “회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힘쓰겠다”며 “지역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경주하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간성 광산태생으로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이사를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남편 송규희씨(농업)와 2남의 자녀를 두고 있다.

박승근 기자

□ 최성철 강원도 서울출장소장

“도·고성 발전 위한 국비 확보 최선”

죽왕면 오봉1리 출신 최성철씨(50세, 사진)가 지난달 31일자로 4급 서기관 진급과 함께 강원도 제8대 서울사무소장으로 영전했다.

최성철 소장은 지난 5일 전화통화에서 “5월부터 정부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 계획이 세워지기 때문에 무척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강원도와 고성군 발전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서울사무소는 도청 예산담당관실 및 각 실국, 그리고 도내 18개 시군과 협의해 국회와 정부 각 부처에 예산 협조를 요청하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다.



또 접경지역특별법 등 지역 발전에 필요한 각종 법안 통과와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지원 업무도 맡고 있다. 아울러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출향도민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추진한다.

도 서울사무소는 서울시 마포구 소재 강원도민회관 4층에 위치해 있으며, 도청 소속 10명과 시군 소속 10명 등 모두 20명의 공무원이 일하고 있다.

최 소장은 공현진초등학교(19회)와 고성중(20회), 고성고(19회), 동우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80년 7월 공직에 입문했다.

죽왕면사무소를 시작으로 강원도 관광문화국 관광지원조성담당, 도 기획관리실 경제선진도담당, 도 투자유치사업본부 기업유치정책담당으로 일하다 이번에 서울사무소장으로 발령됐다.

가족은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 홍정임씨와 2남. 취미는 배드민턴. 최광호 기자